

## 정기간행물 출판기사 색인

● 눈으로 보는 한국책의 역사-제 7회 '서울 북페어' 20일 개막...古書 경매전, 古書대학도 열려(조선일보 3월 18일)

● 크게 늘던 번역도서 고개숙여-국제 저작권 조약 가입 영향받아...전년비 86년 11%, 87년 5% 줄어 / 국내저작물 출판은 상대적으로 늘어나(서울신문 3월 18일)

● '한길역사강좌' 100회 돌파-85년 7월 시작...출판사의 역할에 새 모범 / 대학外 학술강좌 중 독보적 구실...민간단체 강좌 붐 일으킨 기폭제 / 성공 힘입어 '한길역사학교'로 확대 계획(서울신문 3월 18일 朴康文기자)

● "번역출판물도 저작권 인정해야"- "意譯부분 창작으로 간주 / 영학출판에 발행금지 첫 가져분 판결...해적판근절 계기될 듯(한국경제신문 3월 19일)

● 의류관계서적 출판붐 일어-최근 「복식의 역사」, 「의복 제2의 피부」등 나와(스포츠서울 3월 19일)

● "남·월북작가 23명의 작품 해금해야"-출판협, 문공부에 건의 "이념적인 문제 별로 없다" / 30년대 문학적 복원 위해 불가피(서울신문 3월 19일)

● 대학가에 原書 품귀-복사판 판금여파 구독난 가중 / 암거래 성행...값도 50%까지 경중 올상(매일경제신문 3월 19일)

● 대학 밖 지식인 양성장 '한길역사강좌' 1백회-85년 7월 개설...경제사·현대사 등 강의, 토론 / 주제별 유명 강사진, 내용정리 책 8권 간행도(중앙일보 3월 19일 康英鎭기자)

● 연극·무용·출판에 禪바람-공연 때 禪問答...만화소재도 / 참선단체 늘어 "宗團 지원을"(한국일보 3월 20일 朴永喆기자)

● 국내출판물에도 불법복제 성행-단속 강화 불구 싹맛에 날개돋쳐 / 전국에 복사업소 3천5백여 곳...초고속설비한 대형업소도 / 전화예약, 지하판매 통해 다방 등서 교환(경향신문 3월 21일 安健鎭기자)

● 한국 출판문화 한눈에-회귀古

書 611종 모아 '책의 역사'전 / 최초의 백과사전 「攷事撮要」도 선보여(경향신문 3월 21일)

● 정치인 저서 홍수-현역의원 등 표저냥 자비 발간 / "총선대비 이미지 삼는다"...공적·경력 강조...올들어 50여종 / 거의가 배포용... "책의 유인물화" 비난도(중앙일보 3월 21일 奇亨度기자)

● 財界, 홍보대책 "비상"-광고주 협 결성 '과당 유지' 대비...전담부서 대폭보강...창구 일일화 / 계열사별로 특정한전담방안 강구...자료전산화로 능동적 서비스체제도 / '언론전국시대'...正攻法 대응(한국경제신문 3월 22일)

● 「현상과 인식」 본격 종합학술지 발돋움 / 창간 11년 맞아 올해부터 새모습 선보여...외국어론 벗어나 한국사회분석에 중점(서울신문 3월 22일)

● 러시아 문학이론가 바흐친연구 붐-소그룹모임들 활발한 작업...국내 첫 번역서 2종 잇따라 출간(서울신문 3월 22일)

● 베스트셀러, 중고생이 만든다-이젠 책 선택권·구입 등 모두 스스로 / 교보문고 하루 1만5천여명 이용(중앙일보 3월 22일 奇亨度기자)

● 종교서적, 내용-폭 다양해졌다-인간, 예술, 정치, 문학, 국가와의 관계규명 활발(동아일보 3월 22일 宋煥彦기자)

● "신·조상·인간의 공동생활 공간-김판언교수, 「한국의 주거민속지」 펴내 / 유교윤리 반영...남녀노소 방 구별 엄격 / 새집 지을 땐 사당터부터 정해...안채·사랑채 사이 은밀한 통로(한국일보 3월 22일 金薰기자)

● 한국출판계의 현주소(4)-번역문화, 문맥·문화적 배경 무시한 오역 많아...중요성 감안, 업적인정 풍토가 시급 / 저작권 판례계기...해적판 줄어들 듯(한국경제신문 3월 23일 李成九기자)

● 사경 헤매어 "신들린 詩作"-시인 朴正萬씨 6개월 동안 6권의 시집 출간 / 작년 여름 20일간 3백편 창작...「接神의 시간」 속 삶과 죽음 노래 / 어려움 속 쓴 작품 들이지만 도그 수준작(중앙일보 3월 24일 奇亨度기자)

● 잡지 '전문화시대' 열렸다-골프, 태권도에서 부동산, 다방까지 다양 / 등록총수 2487종...무료배부지만 1734종(동아일보 3월 24일 宋

煥彦기자)

● 선거관련서적 "홍수"...39종 출판-총선 겨냥 개인 홍보 차원, 문집은 수없이 많아 / 전략·분석·원론 다룬 3종류...근서점엔 별도 코너 마련도 / 일부도서 모락·선동·폭력 전수 우려(서울신문 3월 25일 朴康文기자)

● 식생활 관련도서 다양해졌다-밀반찬·찌개 등 일상조리법 주중...단행본, 전집류 등 1백50종 나와 / 젊은 주부들에 인기...건강식 다룬 것도 늘어(한국일보 3월 25일 金龍善기자)

● 한·일 도서전시회 오늘 개막-31일까지 서울 교보문고서 열려 / 각분야 서적 2천8백여종 출판...한국의 日연구서 일제시대 편중(조선일보 3월 25일 曹良旭기자)

● 작년에 나온 책 38,301종-총 발행부수 1억5천여만부 / 출협집계, 대통령선거 영향...성장 저조...역사·문학·예술분야는 감소(서울신문 3월 25일)

● 국내 평화학연구 본궤도에-연구서 출판·심포지엄·전문가 양성계획 잇달아 / 고대 小연구회, 연구센터로 확대 개편...경희대研, 「세계평화백과사전」 발간(서울신문 3월 29일 趙祐右기가)

● 국내학계 '평화문제'연구 붐-고대, 경희대 등 기구 확대 학술지발달 활발 / 경희대, 「세계평화백과사전」완성...한반도 통일문제연구에 새 전기 기대(경향신문 3월 29일 朴正鎭기자)

● 이산하세 장시「한라산」 법정논쟁 가열-48년 제주도민의 참사 '4·3사건'주제...문단, "40년 덮어둔 역사진실 밝힌 서사시"...검찰, 미국의 식민지규정 등 이적표현물 / 작년말 구속...4일 선고공판에 비상한 관심(중앙일보 3월 30일 奇亨度기자)

● 중공교포문학 '과도기'-연변 자치주 사회과학원 부원장 趙成日씨 소개 / 농경문화권서 '도시'로 전환...조선족문학 3기로 구분...'봉건' 극복 과제 / 文革 후 질·양면서 비약적 성장(한국일보 3월 30일)

● 한국출판계의 현주소(5)-잡지문화...다원사회 부응 세분화·신규등록 쇄도 불구 / 독자층 기반 취약·인력부족...전문화 시급(한국경제신문 3월 30일 李成九기자)

● 대형서점 제구실 못한다-지역상권 분석 못해 독자들 헛걸음...전문서적출판사 공급외면도 원인 /

'서점인 대학' 등 통해 전문인력 양성해야(스포츠서울 3월 31일 윤홍식기자)

● 해금도서 "저작권보호기간 연장해야"-남북작가 유가족 등이 문제제기 / "빼앗긴 세월, 수십년간 재산권 손해...정부서 사후구제책을 세워야 마땅"(서울신문 3월 31일 任英淑기자)

● 잡지문화, 선진국으로 달린다-발행증수도 급증...2월말 2천4백여종 / 내용 전문화·포켓형까지 등장 / 신규등록 폭발로 선정·비윤리 등 우려(중앙일보 3월31일 李憲益기자)

● 세계자연과학사 한눈에-科技財團, 4권은 이미 펴내 / 한국사도 수록...전20권 곧 발간 / 여명기부터 20세기초 量子論까지(서울신문 3월 31일)

● 도서관 管掌싸고 '줄다리기'-출판·교육계, 문화·문교부 이관 놓고 이견 / 출판계, "행정 연계 고려, 문화부관장 마땅"...교육계, "이용자 80% 학생" 문교부에 뒤야 / 제대로 육성하려면 전담부서 신설 바람직(서울신문 4월1일 朴康文기자)

● 책의 고유번호 출판사서 제정-도서관법 시행령안 일부 수정(서울신문 4월 1일)

● 鄭芝溶·金起林씨 작품 공식해금-(동아일보 4월 1일)

● 월북작가 작품해금-김기림·정지용만(경향신문 4월 1일)

● 鄭芝溶·金起林 작품 해금-정부서 공식 결정...6·25전 사상성 없는 것만(중앙일보 4월 1일)

● 서정시집 쏟아진다-李時英씨 등 10여명 잇따라 신작발표 / 어린날 겪은 동심의 상처「내 젖은...」, 바닷가마을 독특한 숨결「섬 엉겅퀴」 / 고은·신경림·김준태·김초혜씨등도 새 시집 준비 중(동아일보 4월 1일 高美錫기자)

● 남북작가작품 해금 폭넓게-(한국일보 4월 2일 사설)

● 출판량 40년 동안 37배 늘어-발행부수 83년에 1억부 돌파 / 전국출판사 3천개...경쟁 치열(한국일보 4월 2일 金龍善기자)

● 40년 불구 '한국문학사' 복원 첫 걸음-정지용·김기림 작품 해금의 배경과 의미 / 북한도 배척한 '휴전선 문인'...78년 '연구개방원칙' 시사...출판된 작품 추진한 셈 / 검토대상 문인 26명 비롯 학·예술전문 확산 기대(중앙일보 4월

2일 奇亨度기자)

● 「세계평화백과사전」 첫선 -공산권 등 40국 학자·백여 국제기구 참여 / 관념적 평화론을 실제화...영문판 전4권(중앙일보 4월 4일)

● 출판물 판권부덕방-저작권수출 본격화 / 저작권법 발효 이후 13개社 경쟁 / 수출차원으로 기획...유명 외국사와 제휴도(중앙일보 4월 4일 李憲益기자)

● 중국 「四庫全書」 242권 영인본 국내 첫 출간-亞細亞학술문화의 寶庫...清건륭 황제命으로 만들어 / 문헌고증·분류 등에 학자 수천명을 동원...10년 걸려(중앙일보 4월 4일)

● 연구실적 없는 학회 많다-학술진흥재단 분석...38%가 학회지 못내, 인문사회 부진, 科技 활발(경향신문 4월 4일 朴正鎭기자)

● 교육 문제점파헤친 책 출판활기-사립학교 비리, 교육법 모순 등 고발(동아일보 4월 5일)

● 투자도 배우고 그림도 즐기고, 증권만화 인기-영어풀이, 실험기 등 두가지 종류 / 모두 8종...1만부 이상 팔린 것도...최근엔 세금관개만화도 등장(조선일보 4월 5일 李泓기자)

● 4·19세대의 '4·19 소설'-金萬玉씨 장편 「계단과 날개」 출간 / 역사체형 형상화...동승동 풍속도 / "치열한 파노라마...타성적 표현 극복노력"(조선일보 4월 5일 曹良旭기자)

● "교과서통제 부작용 많다"-역사, 영웅 중심 기술...민중의 역할엔 소홀 / 국어, 민요등 외면 지식인·지배층 작품만(한국일보 4월 5일 李基禎기자)

● 완화된 '이데올로기 소심증'-정지용·김기림의 해금조치를 보고 / 월북문인 문학사적 논의 길 터...분단의 역사 극복위한 기반제공 기대(중앙일보 4월 6일 권영민교수)

● 「춘향전」, 日 동경대서 '새 판본' 발간 - 朴甲洙교수, 기존판본 비교논문 발표 / 분량많은 한글 필사본...해설 길고 유머 풍부해 / 30년대 고물상서 8년에 구입 소장(중앙일보 4월 6일 康英鎭기자)

● 한국출판계의 현주소(6)-이념서적, 해금 후 500여종 나돌아...정치비화 판쳐 / 독자의식 성숙...전문적 번역·출판 시급(한국경제신문 4월 6일 李成九기자)